

Korean B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superior – Prueba 1

Monday 8 May 2017 (afternoon)
Lundi 8 mai 2017 (après-midi)
Lunes 8 de mayo de 2017 (tarde)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 Répondez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fourni.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para la prueba 1.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본문 A

2017 KF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인턴십 참가자 모집

- ❶ 한국국제교류재단 (KF) 은 “KF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에 참여할 차세대 인재를 모집합니다. KF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는 우리의 미래 인재들이 국제 환경에서 일하면서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합니다.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는 다양한 지구촌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창설되었습니다. 1947년 이래 전 세계 160개국 21,000명의 인재들이 참가해 왔습니다.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는 연중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각종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며 참가자는 3개월 기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경험과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 ❷ • 인턴 선발 일정

서류 접수마감	합격자 발표	인턴십 기간
2017.2.29 (월) 18:00	2017년 5월 첫째주 KF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3개월 2017.7-9

-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VISA 발급 등 해외여행에 걸격사유가 없는 자
대학 졸업 예정자 (2016년 2월 기준) 또는 대학 졸업 최근 1년 이내
학부과정 성적 평점 3.0점 이상 (4.5만점 기준)
MS Office 프로그램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춘 자 우대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진취적으로 타인과 협조하는 인재 우대
지원 분야 관련 경력 보유 인재 우대.

- 지원 내용

왕복 항공권
숙식제공, 월 정액 별도 \$780 제공
해외 여행자 보험료.

- ❸ • 제출 서류

- ① 온라인 지원신청서
- ② 지원동기서
- ③ 재학/졸업 학력증명서
- ④ 전 학년 성적증명서
- ⑤ 유효한 공인 어학 성적증명서
- ⑥ 2인의 추천서 (영문) ※ 추천 자격은 지원자 소속 대학교수로 제한

- 제출 방법

구비서류: 제출 서류란에 명시된 구비서류 ②-⑤의 스캔본을 온라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추천서: 추천인에게 자동발송된 추천서 작성요청 이메일을 통해 추천인이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

본문 B

나의 쓰임은 무엇일까요?

나의 쓰임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쓰임을 함께 고민하는 한지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5 한지현 선생님은 되살림 가게, “자연터”에서 헌 옷을 모아 인형과 소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활동가입니다. 자연터는 사용 가능한 자원들을 재사용하여 생태적 삶의 태도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주민들의 지역살림 공동체이자, 아줌마들의 수다 장소, 아이들의 숙제방이기도 합니다.

10 “쓰임이 없는 물건은 없어요. 이 곳은 지역 주민들이 기증한 재활용 물건들을 모아 판매하는 되살림 가게예요. 저는 여기에서 판매되지 않는 의류를 이용해 인형이나 가방 등의 소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고 있어요.”



15 “어려서부터 그게 궁금했어요. 나의 쓰임은 무엇일까? 쓰임은 계속 변해가는 거라 생각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꿈을 품고 평생 한 가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의 쓰임을 새롭게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도 꽤 괜찮은 삶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20 “부전공으로 배웠던 의상디자인이 저의 쓰임을 바꿨죠. 업사이클링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아까워서예요. 성격이 뭘 잘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 주고 싶더라고요. 대학생이었을 때, 청소년 미디어센터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농촌으로 농활을 자주 갔는데 ‘농촌 아이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서울 노원구에 있는 마들 창조학교에서 일하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하고 아이들의 장기적인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25 “문화 예술 미디어 교육은 자기표현이에요. 지금 아이들에게 손작업 수업을 하고 있어요. 바느질을 통해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신이 만든 업사이클링 소품을 판매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예요. 우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는 것이 먼저겠죠. 물론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더 나은 성장을 할 수 있으면 해요.”

박성희, 자연이랑 62Life (2014)

본문 C

엄마를 부탁해

5 엄마의 사진을 어느 걸 쓰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라졌다. 최근 사진을 붙여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누구도 엄마의 최근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너는 언제부터가 엄마가 사진 찍히는 걸 매우 싫어했다는 걸 생각해냈다. 가족사진을 찍을 때 엄마는 어느 틈에 빠져나가, 사진에서는 엄마 모습만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

10 5 칠순 때 찍은 가족사진 속의 엄마 얼굴이 사진으로 남은 가장 최근 모습이었다. 그 때의 엄마는 물빛 한복을 입고 미장원에 가서 업스타일로 머리를 손질하고 입술에 붉은빛이 도는 루즈를 바른, 한껏 멋을 낸 모습이였다. 사진 속 엄마는 실종되기 전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 그 사진을 따로 확대해 붙여본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리라는 것이 네 남동생의 의견이었다. 남동생이 인터넷에 그 사진을

15 10 올렸더니 “어머님이 예쁘시네요. 길을 잃어버릴 분 같지 않은데요.”라는 댓글이 올라온다고 했다. 너희는 각자 엄마의 다른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 큰 오빠는 너에게 문구를 더 보충해보라고 했다. 네가 큰 오빠를 물끄러미 바라보자 좀 더 호소력 있는 문구를 생각해보라고 했다. 호소력 있는 문구. 어머니를

20 15 찾아주세요,라고 쓰니 너무 평범하다고 했다. 어머니를 찾습니다,라고 쓰니 그게 그거고 어머니라는 말이 너무 정중하니 엄마,로 바꿔보라고 했다. 우리 엄마를 찾습니다,라고 쓰니 어린애스럽다고 했다. 윗분을 보면 꼭 연락바랍니다,라고 쓰자 큰 오빠가 “넌 대체 작가라는 사람이 그런 말 밖에 쓸 수 없냐!” 버럭 소리를 질렀다. 큰 오빠가 원하는 호소력 있는 문구가 무엇인지 생각해 낼 수가 없었다. “호소력이 따로

25 20 있어? 사례를 한다고 쓰는 것이 호소력이다,” 작은 오빠가 말했다. 사례를 섬섬지 않게 하겠습니까,라고 쓰자 “사례를 섬섬지 않게?” 이번엔 울케가 그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했다. 분명한 액수를 적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그럼 얼마를 적을까요?”

“백만 원?”

“그건 너무 적어요.”

30 25 “삼백만 원?”

“그것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럼 오백만 원.”

35 30 오백만 원 앞에서는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 너는 “오백만 원의 사례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적고 마침표를 찍었다. 작은 오빠가 “사례금: 오백만원”으로 고치라고 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 엄마의 사진을 찾아보고 적당한 게 있으면 바로 네 이메일로 보내주기로 했다. 전단지 문안을 더 보충해서 인쇄하는 일은 네가, 그것을

40 35 각자에게 배송하는 일은 남동생이 맡기로 했다. “전단지 나눠주는 아르바이트생을 따로 구할 수도 있어”, 네가 말하자, “그건 우리가 해야지”, 큰오빠가 말을 받았다. “그렇게 언제 엄마를 찾아?” 네가 투덜거리자, 큰 오빠는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어”, 라고 했다. “해볼 수 있는 일 뭐?” “신문광고”, “신문광고가 해볼 수 있는 일의 다야?” “그럼 어떻게 할까? 내일부터 모두 일을 그만두고 무조건 해매고 다닐까? 그렇게 해서

45 40 엄마를 찾을 수 있다고 보장만 되면 그리 해보겠다.” 너는 큰 오빠와의 실랑이를 그만두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줄곧 그래왔다.

50 45 엄마의 실종을 어렵게 풀어나가야 할지 상의하러 모였다가 너와 가족들은 예기치 않게 지난날 서로가 엄마에게 잘못된 행동들을 들춰내었다. 순간순간 모면하듯 봉합해온 일들이 툭툭 불거지고 결국은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본문 D

웹툰, 어디까지 왔나

미국에 코믹스, 일본에 만가가 있다면 한국에는 만화가 있다. 이들은 흔히 만화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별반 구분 없이 소비되지만 조금만 파고들어보면 각기 다른 결을 지닌 독립 장르라 봐도 무방하다. 탄생부터 성장과정까지 다른 문화적 배경이 녹아들어 있어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역사적 단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웹툰을 여는

5 인터넷 만화와 구분지어야 하는 이유다. 웹(web) 과 카툰(cartoon) 의 합성어인 웹툰은 이제 단순히 웹을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만화의 의미를 넘어섰다. 웹툰이라는 말에 웹툰이 공급되는 환경, 다양한 장르와 다채로운 문법들, 소비자들의 이용 형태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10 2003년 다음의 “만화속세상” 코너에 정식으로 연재를 시작한 이래 웹툰은 포털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2005년 네이버가 웹툰 서비스를 본격화하면서 저변이 급속도로 확대됐다. 시장이 커지자 자연스럽게 형태도 풍성해졌고 과감하고 이색적인 시도를 한 작품들도 점차 늘어났다. 놀 수 있는 판이 마련된 것이다. 장르의 다양화는 다시금 새로운

15 독자의 유입을 불러왔고 기존의 잡지에서 활동 중이던 젊은 작가들도 흐름에 동참했다. 웹툰이란 이름의 생태계가 그렇게 탄생했다. 몇 그루 묘목에서 시작해 울창하게 거대한 만화의 숲. 웹툰 탄생 10년이 넘은 지금 한국의 웹툰은 또 다른 단계로 진화 중이다.

20 웹툰 시장은 분명 거대하지만 이른바 “공짜경제” 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의 정확한 측정은 어렵다.

25 2014년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발행한 “2013만화산업백서” 에 따르면 대략 15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측정의 기준이 미비해 환산은 까다롭지만 일단 이용자 규모만큼은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2014년 기준으로 네이버와 다음의 웹툰 사용자는 월 630만명, 페이지 뷰는 9억회에 달한다. 한데 주목할 만한 점은 2012년에는 월 1천만명을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승승장구하던 웹툰 산업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말인가? 반대다. 대형 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던 웹툰의 이용 창구가 모바일, 중소 웹툰 전문 사이트 등으로 다변화되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른바 웹툰 시즌 2의 시작이다.

30 최근 웹툰 시장의 변화를 크게 4가지로 요약한다면 콘텐츠의 유료화, 플랫폼의 다변화, 작가 에이전시의 역할 증대, 작품의 표현 영역과 장르 확대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크고 작은 변화를 언급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특히 이 4가지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송경원, 씨네 21 (2014)

본문 E

혼자가 편한 사람들

1인 가정이 늘고 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혼밥”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혼자가 편하고 인맥을 늘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린다.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 하지만 그 속에서 군중속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은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혼자가 편한 것일까? 정말 혼자가 편한 것일까?

혼자가 좋은 이유?

몇 가지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어렸을 적부터 혼자서 지내는 것을 학습한 경우다. 요즘은 혼자 노는 사람들은 노인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핵가족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 문화 속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렸을 적부터 함께 어울려서 집단으로 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혼자 놀았던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은 좋은 것 보다는 익숙하고 편한 것을 찾는 법이다. 중년이나 노인들을 보라. 그들도 어린 시절 경험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여전히 즐기지 않는다.

혼자가 편한 사람들



그 다음은 성격 때문이다. 회피적인 성격은 혼자 지낸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 받고 수용 받지 못하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며 만남을 회피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항상 인정 받고 수용 받기는 힘들다.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꺼린다.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을 선호한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한다. 혼자 있기를 원하면서도,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잡기 원한다. 혼자 있다 보면 함께 있고 싶어지고, 함께 있다 보면 혼자 있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 혼자 있는 것이 좋다거나, 계속 함께 있어야만 한다면 이것은 마음의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식상한 표현이다. [-X-]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계속 화자되는 것이다. 언제나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끔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꿀 맛 같다. [-52-] 우리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혼자”와 “함께” 사이에서 “왔다 갔다”하는 인생이다. [-53-] 혼자 지내다가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선다면, 그것은 사람들 자체가 싫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 누구도 자신 말고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